

여성창업자의 창업성과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부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상철*

성신여자대학교 창업지원단 부단장

황보윤**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부교수

국 문 요 약

국내에서는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 여성들이 창업시장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여성창업자들을 위한 민관중심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행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성창업자들이 창업을 통해 성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개인적인 역량이나 업무적인 역량외에 여성만의 가지고 있는 특징을 독립변수로 선택하여 여성기업의 창업성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여기에 창업기업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적인 요인도 조절효과로 추가하여 여성창업자의 창업성과를 조사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총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설문에 참여하여 답한 내용중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부정확한 표기를 한 설문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총 212명의 여성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설문을 통해 결과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여성창업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창업성과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창업자의 업무적 특성인 독창성, 아이디어, 자원분배역량, 지도역량, 네트워크 구축, 인맥확보등이 여성창업자의 창업성과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창업자만의 특성인 경력단절 유무와 결혼유무에 대해서는 회귀분석을 통한 나타난 결과는 창업성과와 무관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절효과인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은 여성의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가 여성창업자의 다른 독립변수를 능가할 만한 효과로 나타나지는 않아서 정부의 여성창업자에 대한 정책지원이 좀 더 보강되고 확장되어야만 창업의 성과가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1. 서론

최근 글로벌 경제의 침체와 국내경기 활성화를 위해 창업시장의 활성화가 국가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IMF 이후 성장에서 분배에 많은 초점을 두면서 성장동력을 상실하면서 연평균 성장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더구나, 정부의 경기활성화대책들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청년은 물론 여성들의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창업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선순환구조가 정부정책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은 물론 경력단절여성들도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시장에 도전하는 사회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과거처럼 창업에 대한 도전이 부담스러워 하고 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창업하기를 꺼려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창업에 대한 역량만 확보하고 있으면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의 도움으로 창업에 대한 장벽을 쉽게 허물고 자유롭게 도전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창업자들의 다양한 역량평가 기준에 따라서 창업기업의 성과는 크게 달라진다. 1990년 Timmons 교수는 창업자들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과 업무적 역량지표에 따라 창업성과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또한 Carland (1998)는 Timmons의 역량모델을 바탕으로 창업가적 행동의지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역량지표(the Carland Entrepreneurship Index)를 개발하여 창업자들의 역량을 평가하기도 하였다.

창업자들의 역량에 따라 창업의 성과가 달라진다는 연구

*주저자, 성신여자대학교 창업지원단 부단장, jsc8412@nate.com

**교신저자,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부교수 yun88@kookmin.ac.kr

들이 그동안 많이 진행되어 온 것이다. 또한 단순히 창업자의 역량만으로 창업성고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오고 있지만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에 따라 창업성고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국내에서는 간헐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창업자들의 역량과 특성을 중심으로 여성창업자만의 창업성고를 분석한 결과 데이터가 최신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 배경

2.1. 연구의 필요성

창업가들의 창업역량평가 항목외에 여성창업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창업역량평가 항목을 추가 변수로 설정하고, 과연 국내 창업시장에서 여성창업가의 창업성고에 제시된 창업역량 평가지표외에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도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최근들어 늘어나고 있는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창업지원자금이 실제로 창업현장에서 역량있는 창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궁극적으로 창업시장에서의 창업성고는 정량적인 지표로 부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여성창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정부의 창업지원금이 주어진다면 창업성고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여성창업자의 경우에 결혼이나 자녀문제로 창업의 여건들이 남성들에 비해 열악한 환경임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게 의존하는 부분이 남성들에 비해 크게 부각될 수도 있다. 기존의 창업성고분석은 창업자의 역량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들어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활성화되면서 창업정책에 대한 효과분석도 나름대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나 여성창업자들의 경우에 기혼여부에 따른 자녀양육문제 및 경력단절기간의 존재유무에 따라 창업의 접근성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고 창업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의 효과가 과연 여성창업자들의 창업성고에 조절효과를 통해 어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여성창업자들의 창업환경을 개선하고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2. 연구의 차별성

창업자의 역량지표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다루어져 왔다. 가장 대표적인 학자인 Timmons (1990)에 의하면 창업가의 핵심요인을 바탕으로 창업역량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창업가 특성요인 (Personality traits)을 측정하는 14개항목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skill)을 측정하는 8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수많은 창업자역량에 대한 연구들이 Timmons가 제시한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과 역량, 환경까지 포괄 하는 기업가정신 개념을 정의하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며, 실제로 많은 역량지표들이 이를 바탕으로 개발되어 온게 사실이다. 창업역량의 변수는 Timmons의 창업역량평가지표를 기준으로 국내상황에 맞게 선별 하여 역량항목을 총 6가지 (개인적 특성 3가지, 업무적 특성 3가지)로 선택하였으며, 여기에 아래와 같이 여성창업자의 변수를 창업역량평가지표에 추가하여 총 8개의 항목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즉, 개인적 특성, 업무적 특성, 여성창업자 특징 등 3가지 변수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들만을 타겟으로 설정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즉, 여성창업자들의 창업역량 변수에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 3가지를 조절효과를 추가하여 여성창업자들의 창업성고에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정부의 여성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여성창업자의 창업성과 연구에 있어서 정량적인 지표를 조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는데 이는 여성창업자들이 재무적 성과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성과에 대한 지표를 외부에 노출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창업만족도와 재무적 만족도 등 2가지 범주를 가지고 측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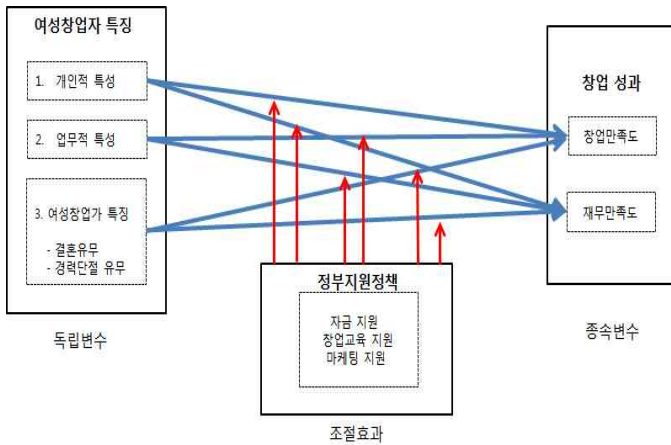
III. 실증연구의 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창업자의 역량을 기본 변수로 설정하고 여기에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을 조절효과를 통해 여성창업자의 창업성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여성창업가의 역량으로 개인적 역량 (열정, 책임감, 모험심), 업무역량 (창의성, 종합력, 창업팀 구성능력), 여성창업가의 특징 (결혼유무, 경력단절 유무) 등 3개의 변수가 사용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창업성고로 재무적 만족도 지표인 매출액상승의 만족도, 순이익 증가에 대한 만족도 및 창업

만족도변수인 고용증가, 신제품 개발 능력 등에 대한 만족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하여 여성 창업자의 역량에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추가되면 창업기업의 성과가 상승할 것이라는 모형을 설정하고 각종 데이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연구분석

분석결과에 의하면, 여성의 창업성가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중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판명된 독립변수의 항목에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의 조절효과가 있는지도 분석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업무적 (특성*지원정책), (모험심*지원정책), (열정/책임감*지원정책) 이라는 변수를 추가했으며 p-value를 측정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자의 특성과 연계되어 조절효과로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여성창업자의 창업성과는 크게 달라지는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의 개인적인 역량이나 업무적 역량이 창업성과에 중요한 요인이며,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비록 여성창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더라도 창업성과가 크게 달라지는 않는다고 보아 여성창업자들에 대한 창업지원정책이 개선되거나 수정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추가로 재무적 만족도에서의 정부지원정책과 다른 변수들 간의 조절효과도 분석해 보았지만 창업만족도에서의 측정결과와 마찬가지로 조절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의 조절효과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보면 정부의 창업지원정책과 다른 특성들의 조절효과를 보는 P-value가 매우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표 1> 독립변수와 정부창업지원정책 조절효과

구분	계수	표준 오차	t 값	유의확률 (p-value)	VIF
상수	-.090	.347	-.259	.796	-
업무적 특성	.334	.062	5.419	.000	1.058
정부지원정책	.225	.360	.625	.533	35.963
개인적특성_모험심	.233	.061	3.801	.000	1.041
개인적특성_열정/책임	.251	.061	4.094	.000	1.043
결혼 유무	.015	.133	.109	.913	1.226
경력단절 유무	.045	.136	.328	.743	1.225
업무적특성*지원정책	-.036	.057	-.629	.530	1.099
모험심*지원정책	-.020	.063	-.321	.749	1.074
열정/책임감*지원정책	-.068	.063	-1.76	.283	1.083
결혼유무*지원정책	.023	.135	.167	.867	12.126
경력단절유무*지원정책	-.022	.141	-.153	.878	16.111
R 제곱					.280
수정된 R 제곱					.240
분산분석				F-value	7.070
				df(p-value)	11(.0)

여성창업자들의 특징중 하나인 결혼유무 및 경력단절 유무에 대해서도 창업성과와의 유의성 유무를 측정된 결과, 결혼 유무 및 경력단절 유무가 창업성과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결혼유무 및 경력단절유무와 창업성과간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어 여성이 창업하여 사업을 하는데 경력단절이나 결혼유무가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히려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창업에 대한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면서 경력이나 가정생활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역량만 있으면 얼마든지 창업성과를 낼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여성창업자의 창업성과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성창업자의 개인적, 업무적 역량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고 더 나아가 정부의 창업지원정책도 어느정도는 창업성과에 조절효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을 통해 여성창업자들에게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여성창업자의 창업성과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3.3. 연구가설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창업성과를 측정하는데 재무적 만족도와 창업만족도 2가지를 가지고 측정하였다. 이에 따라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여성창업자의 개인적인 특성, 여성창업자의 업무적 특성, 여성창업자

의 특징인 결혼유무, 경력단절유무 및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을 변수로 하여 2가지 창업성과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의 조절효과와 창업성과에 대해서도 가설을 설정하여 측정된 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표 2> 창업성과 영향요인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 요약

구분	재무적 만족도		창업만족도	
	유의 확률	영향 유무	유의 확률	영향 유무
가설1-1/가설1-2 (모험)	.200	없음	.000	있음
가설1-1/가설1-2 (책임감)	.833	없음	.000	있음
가설2-1/가설2-2 (업무역량)	.892	없음	.000	있음
가설3-1/가설3-2 (결혼유무)	.361	없음	.985	없음
가설3-3/가설3-4 (경력단절유무)	.365	없음	.788	없음
가설4 (정부창업정책)	.021	있음	.001	있음
가설4-1~가설4-8 (정부 조절효과)	높음	미미	높음	미미

IV.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창업여성 CEO들을 대상으로 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여성창업자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여성 창업성과 사이에 어느정도 상관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여성창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선행연구를 통해 업무적 특성, 개인적 특성의 2가지로 분류하였다. 성별을 떠나 창업자들의 역량은 보편적으로 개인적인 특성으로 모험심, 책임감, 열정과 같은 변수들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업무적 특성으로는 창의성, 종합력 및 창업팀 구성역량등 다양한 변수가 사용되었다. 여기에 여성창업자만의 특성중 결혼유무와 경력단절 유무를 추가적으로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또한 최근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다양한 형태 즉, 창업지원금, 창업교육, 마케팅지원등으로 예비창업자들을 포함해서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여성창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지와, 이러한 정부정책이 위에서 언급한 독립변수들과 창업성과사이에 조절효과로 어느정도 기여하는 지에 대해서도 실증적으로 분석,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추가로 여성창업자의 특징인 결혼유무 및 경력단절유무의 두 그룹간의 회귀분석을 통해 창업성과에 대한 측정을 하였으나, 여성창업자가 기혼 혹은

미혼이건, 또는 경력단절 경험이 있건 없건 간에 창업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성창업자들만의 창업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여성창업자만을 위한 별도의 정책이 발굴되어 지원이 된다면 여성창업자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좀 더 보완하여 여성창업자만을 위한 진정한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의 방향을 적용시킨 정교한 연구모형의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7). 여성 기업가정신 증진 및 창업활성화 방안, 205, 1-33

김남기·유성우·배병렬(2014). 창의성, 창업지원이 창업환경 및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지원과 경영 통제를 조절효과로) (사) 한국산업경제학회 춘계국제학술 논문집, 519-543

김상순·양영석·김종원(2012). 정부의 창업지원제도가 창업과정특성과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국벤처창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9-211

김성일·이우진(2016).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CEO의 기업가정신 및 시장지향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1(5), 1-13

나중덕·김승호·최탁열(2004). 여성창업기업의 환경 및 경영자 특성, 협력활동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중소기업학회, 26(1), 1-2

Amar, V. B.(2000). The Origin and Evolution of New Business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412

Baum, R. J., Edwin, A. L., & Ken, G. S.(2001). A multidimensional Model of Growt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2), 292-303

Baum, J. R.(1995). The Relation of Traits, competencies, motivation, Strategy, and Structure of venture growth, *Frontier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vol 4, 547-561 <https://fusionmx.babson.edu/entrep/fer/papers95/baum.htm>.

Boyatzis, R. E.(1982). The Competent Manager: A Model for Effective Performance, John Wiley & Sons, New York, NY.

Bygrave, W. D.(1989). The entrepreneurship paradigm (i): A philosophical look at its research methodologie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